

사사기 18. “나실인 삼손의 최후” [16 장 1 절-31 절]

1. 들어가기

본 장은 13 장에서 시작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삼손은 본 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블레셋을 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은 늘 기회를 엿보며 삼손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 라는 한 여인에게 빠진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을 통해 끈질기게 삼손을 유혹하며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끈질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나실인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며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 곳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가족들은 그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버지의 장지에 함께 장사함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2. 삼손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1-3 절)

1) 삼손은 나실인의 본분을 무시하고 가사의 한 블레셋 기생을 취하였습니다.

- 참고 : 가사 - 히브리어 “아잔”에 대한 헬라식 발음으로 ‘강한 성, 견고한 성읍’이라는 뜻
 -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섯 성읍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
 - 이집트로 가는 통로가 되었기에 고대부터 상업의 중심지 및 군사적 요지로 알려진 성
-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삼손을 보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 사람의 습관과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2)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 매복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가사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 **생각하기 1.** 만약 여러분이 당시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삼손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참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65km 정도가 된다고 함. 산의 높이도 대략 해발 1000m..)

3.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4 절)

- 소렉 골짜기 = 삼손의 고향 소라 땅 옆의 골짜기로 걸어서 45 분 정도 걸리는 지역.
- 들릴라 = 이스라엘 여인이었는지 블레셋 여인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음!
 - 히브리어적 이름의 뜻은 “요염하다” 라는 뜻이고, 문자적으로 “악한 자, 번민하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음.
 -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녀의 이름이 뜻하듯 아마도 그 지역에서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고급 창녀가 아니었을까 생각..

1)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5 절)

-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의 제안 -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 개씩을 줄 것!
 - 블레셋의 다섯 방백 = 블레셋 다섯 성을 대표..
 - 은 5500 개(세겔) = 약 62.7kg (1 세겔=11.4g)
 - 당시 은 1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 일간의 임금에 해당!!
 - 요즘 가치로 따져보면, 시급=\$15, \$15x8x4=\$480=1 세겔. 5500 세겔=\$12,672,000.000
- 삼손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음

2) 이렇게 엄청난 돈의 유혹 앞에 들릴라는 결국 삼손을 배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생각하기 2.** 우리는 살면서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리거나 넘어진 적은 없었나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기 위해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였습니다. (7-14 절)

1) 들릴라는 3 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삼손을 유혹하며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졸랐고, 이에 삼손은 3 번 모두 거짓말로 대처하였습니다.

- 삼손의 대처
 - 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약해지게 될 것.
 - ② 쓰지 아니한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약해지게 될 것.
 - ③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약해지게 될 것.

- **생각하기 3.** 삼손의 이런 대처는 과연 잘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범죄케 하도록 유혹해 올 때,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로 강경하게 대처하며 그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5. 끊임없는 유혹을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삼손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5-20 절)

1) 3 번이나 실패한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욱 더 삼손을 재촉하며 유혹하였습니다.

- 주목 : 삼손의 마음은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
- 그로 인해 결국 삼손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질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 우리는 삼손이 지난 번 덩나의 사건 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 **생각하기 4. 불에 한번 데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불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능력의 사람 삼손은 어린이보다 못한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목 -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면 분명히 들릴라가 그대로 행하며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말했다는 것!! Why ?

우리도 삼손과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우리도 죄를 짓기 전에 이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죄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 죄가 주는 잠깐의 행복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히 삼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삼손의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을 올라 오게 한 후,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한 후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었습니다.

- 그 결과 -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함!
- 주목 1: 성경은 단순히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것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분명히 기록하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였다는 것!! .

- 주목 2: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잘린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싸우려 했다는 사실!

20 절 b.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 과연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다 잘렸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 알았을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신은 전과 같이 힘이 있을 줄 알고 싸우려 했다는 것!!
- Then Why? - 이전의 경험을 근거로 한 삼손의 착각!!!

- **생각하기 5.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떠나셨을까? 이전처럼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어길 때에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6.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원수들에게 잡혀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21-22 절)

- 두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 낮 줄에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
 - 학자들 -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
 - Matthew Henry = 하나님께서 삼손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다는 상징.

7. 삼손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23-31 절)

1)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 다곤 신 = '물고기 신'으로 주로 해안 지방에서 많이 숭배하였음.
 - 당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국가 신으로 숭배하였고, 가사와 아스돗에 국가를 대표하는 신전을 세웠음.
- 다섯 방백들은 삼손을 이날 신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때 삼손은 자신을 이끈 소년에게 청하여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며 서게 하였습니다.

- 이때 신전 안에는 약 3000 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28 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4) 기도 후 삼손은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양팔로 잡고 무너뜨려 그곳에 모인 블레셋 방백들과 모든 백성을 덮쳐 죽이며 자신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성경은 이날 삼손이 죽인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

5)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면서 20 년간의 삼손의 사사의 삶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생각하기 6.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